

# 2011 승진형법기출문제 경사 [윤황채교수]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형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구) 아동복지법(2000.1.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다.

##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②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법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법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 3. 다음 중 형법상 천고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자명예훼손죄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존속협박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과실치상죄
㉦ 비밀침해죄	㉧ 준강제추행죄

① ㉠,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 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①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의 징표기능을 부정하게 되어 범죄론체계의 일관성이 없고,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②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작위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때 교사·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③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 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범무사가 아닌 사람이 범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범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범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거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범무사범 제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 5.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①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책임요소설은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초래하고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불합리가 있다.
- ②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므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④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 6.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 ③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5조 제2항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② 협의의 공범에게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이외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협의의 공범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甲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수인 乙을 협박하여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乙의 목 부분에 겨누고 협박하자 이에 놀란 乙이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甲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찢려 상처를 입은 경우에 甲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8.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경찰로부터 뺨까지 맞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할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9. 판례에 의할 때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
-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
- ③ ‘회사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번호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
- ④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한 행위

**10.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여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③ 마약취급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이편을 구해 주었다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④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제한고의설에 대해서는 상습범 또는 확신범 등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특별히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형사정책적인 결함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11.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① 강요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 ② 강요의 수단인 폭력 또는 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피강요자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피강요자가 강요자와 공범이 될 수 있다.
- ③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개념에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없다.

**12.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나려다 보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인 공용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부동산 매매절차에서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3. 예비, 음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 예비의 공동정범 뿐 아니라 중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있다.
- ㉢ 법률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지 본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 수도불통죄(형법 제195조), 간첩죄(형법 제98조), 중립명령위반죄(형법 제112조),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는 모두 예비, 음

모가 처벌되는 범죄이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범의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③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 ④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15. 다음 중 괄호안 범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②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그 후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한 경우(사기죄와 횡령죄)
- ③ 소속대 병기와 선임하사가 같은 부대인사계 직원으로부터 총기부족 사항을 듣고, 위 총기부족은 행정착오로서 그 총기는 같은 중대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착오인 사실을 감추고 다른 곳에서 총기를 구입해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뇌물죄와 사기죄)
-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16. 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만 묶인 것은?**

- 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불능미수    ② 중범 - 심신미약자
- ③ 자수자복 - 중지미수                      ④ 농아자 - 과잉방위

**17.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은 빗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먹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려 뒤통에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피해자의 딸(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인격자이므로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③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소화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8. 다음은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화끈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침해는 작위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으나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을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 ②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 ③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 ④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를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②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③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21.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 모욕죄는 생존자, 사자 모두에게 성립한다.
  - ㉡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2.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뚝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경우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④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23.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다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 ②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정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4.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회사의 목적업무 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가져간 경우, 비록 그것이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도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또 인수인계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옥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옥저로 그 물건들을 반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유기하여 둔 채 섬을 떠난 후 10년 동안 그 물건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섬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난 지 7년이 경과한 뒤 노후된 물건들을 피고인 집 가까이 옮겨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비록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을 나눈 행위는 강도음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④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원 등이 든 피해자의 키홀더를 우발적으로 가져간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6.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틀린 것(X)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판례에 의함)**

- ㉠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법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지급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 ㉢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

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① ㉠(O) ㉡(O) ㉢(O) ㉣(O)    ② ㉠(X) ㉡(O) ㉢(X) ㉣(O)
- ③ ㉠(X) ㉡(O) ㉢(X) ㉣(X)    ④ ㉠(O) ㉡(O) ㉢(X) ㉣(O)

**27.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장물죄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횡령죄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8.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형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위 축제가 끝난 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② 정상적으로 KOC 위원의 위촉절차를 밟지 않고 KOC 위원이 되고자 KOC 위원장에게 KOC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등의 부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③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④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29.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A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인천중구 소재 연안아파트 상가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다른 곳에 버린 다음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버린 경우 위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④ 甲회사가 乙에게 철재를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甲회사의 사원인 피고인이 위 乙로부터 피해자丙이 위 철재를 매수

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운반하여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30.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거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거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 ②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지만, 증거로서의 가치는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도주원조죄의 경우 미수는 처벌되지만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 ④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31. 甲은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게 되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을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을 취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④ 배임죄

**32.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채권담보로 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장물인지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 ② 은행지점장이 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 정리한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다.
- ③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장저당권 설정자로부터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33.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를 불실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당시에는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34.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甲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乙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공문서 부정행사죄)
- ㉡ 甲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사문서위조죄)
- ㉢ 甲은 건축담당공무원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하였다.(허위공문서작성죄)
- ㉣ 甲은 시청 공무원으로 시청 청사신축공사 현장에 출장을 나간 적이 없는 동료 공무원이 마치 현장출장을 간 것처럼 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장복명서를 생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이를 전송하였다.(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망부(亡父)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해 온 경우에는 그 망부(亡父)명의의 어음발행이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36.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 ② 행정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 ③ 세무서 주세계장이 양조장 주인의 비밀스런 주정사용과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④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본서인 수원중부경찰서 외사계에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37. 다음 중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의

- 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②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③ 아파트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진정인척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 ④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상대방으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38.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는 없지만, 그 가액을 추정할 수는 있다.
- ③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증여가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

**39.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로 볼 수 있다.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죄로 처벌한다.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 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면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경우 乙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②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어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甲, 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甲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2011년 경찰관 정기 승진시험 모범답안(윤황채교수)**

계급	경사	과목	윤!형법	
1	2	3	4	5
④	④	③	①	②
6	7	8	9	10
③	④	④	④	④
11	12	13	14	15
①	④	①	①	②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④	③
21	22	23	24	25
③	③	②	③	①
26	27	28	29	30
③	④	①	①	④
31	32	33	34	35
③	③	④	②	④
36	37	38	39	40
④	④	②	②	②

**윤 황 채**

- 약 력
- 현 서울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JBS 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고려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인천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경남대학교 형법특강강사
  - 현 대구 산업정보대 형법특강강사
  - 현 전국 경찰형법모의고사 대표출제위원
  - 전 대구 국민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전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형법강의
  - 전 서울 노량진 김재규 경찰학원 강의
  - 전 서울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강의
  - 전 대구 한교고시학원 법원검찰 강의
  - 전 서울 종로 한교고시학원 강의
  - 전 부산 금자탑경찰고시학원 강의
  - 전 영남이공대 경찰경호학과 강의
  - 전 마산 중앙고시학원 형법강의
  - 전 울산 남부고시학원 형법강의

**윤황채 2011년 2차시험대비 형법판례특강  
형법판례때려잡기특강**

2011년 5월 예정

1. 2010년 1차, 2차시험에서 판례의 98%와 100% 적중률!
2. 직접 교재로 확인가능 합니다!!!
3. 판례를 알면 형법이 보이고, 고득점이 보이고 합격이 보인다!
4. 처음 형법을 공부해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쉽게 판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1년 2차시험대비 형법총정리마무리특강  
형법조문-형법이론 및 학설-핵심판례**

2011년 7월 예정

1. 형법 법조문 완전정복!
2. 형법이론 및 학설 마무리정리!!
3. 출제가능 핵심판례 요약정리!
4. 2010년 최신판례 완벽정리!
5. 형법 쪽집게 암기사항 마무리!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음 2010. 제4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7판]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도서출판 배움 2011. 초판]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8. 개정판]
5. 형법조문과 판례[도서출판 예음 2010. 초판]
6. 객관식 경찰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 배움 2011. 제2판]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11. 제3판]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11. 제3판]

### 교재문의는 부산 JBS경찰학원(051-817-6112)  
(051-817-3112)

서울 노량진 베리타스M고시학원 02-826-5700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부산 JBS경찰학원 051-817-6112

카페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gosicore@naver.com

### 윤황채 형법고득점 7단계 공부전략

1단계 : 교과서 공부 (PASS 핵심형법)

1순환 : 기초 법률용어공부(형법적용하기)

2순환 : 형법 기본학습(형법내용보기)

3순환 : 형법 심화학습(형법깊이보기)

2단계 : 기초형법 문제풀이(기본문제)

3단계 : 판례공부(판례때려잡기)

4단계 : 학설-이론-법조문 심화학습(형법총정리)

5단계 : 형법기출문제풀이

1순환 : 경찰기출문제(순경,경찰간부,경찰승진)

2순환 : 기타기출문제(검찰직,법원직,법원고시,사법시험)

6단계 : 형법기출지문정리(기출지문OX정리)

7단계 : All Pass 형법문제풀이

1순환 : 진도별 문제풀이(6회)

2순환 : 심화문제풀이(총론1회, 각론1회)

3순환 : 종합문제풀이(1회)